차이나 산업정책 브리프

CHINA Industrial Policy Brief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전화 : 86-10-6505-2671/3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 재정부, 〈정부 공공조달 중소기업 비중 확대〉 7월 1일부터 시행

■ 재정부는 5월 31일 〈정부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 비중을 확대하는 통지문〉(《关于进一步加大政府采购支持中小企业力度的通知》)을 발표하여,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

- 구체적인 내용으로 △중소기업의 정부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, 정부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을 제고 △정부가 중소기업 상대로 화물을 구매함에 있어서, 우대가격을 기존의 6%~10% 비율을 10%~20%로 상향 조정 △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연합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할 경우, 가격 심사 평가기준을 기존 2%~3%에서 4%~6%로 상향 조정 △정부 조달 프로젝트 중, 중소기업 상대로 구매하는 할당액을 기존 30% 이상에서 40% 이상으로 단계별로 비중을 높이는 것 등임

자료원 : 재정부
http://gks.mof.gov.cn/guizhangzhidu/202205/t20220531_3814923.htm

2 中 국가발개위, 〈14차 5개년 재생에너지 발전계획〉 발표

■ 발개위 등 9개 부처는 6월 1일 공동으로 〈14차 5개년 재생에너지 발전계획〉 (《"十四五"可再生能源发展规划》)을 통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대체를 가속화하고, 저탄소 및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

- 동 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로 △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2025년에는 20%로, 2030년에는 25%로 향상 △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2억 킬로와트로 제고 △2025년에 이르러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총량을 33% 안팎으로 달성시키고, 재생에너지 연간 발전량을 3조 3,000억 킬로와트시로 제고 △2025년에 바이오매스 열에너지 공급, 바이오매스 연료 등 非전력 활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 등임

-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는 △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개발. 신장(新疆), 간쑤(甘肃), 황하(黄河), 숭랴오(松辽: 헤이룽쟝, 랴오닝, 지린) 등 지역에 신에너지 기지를 구축. 산둥(山东), 장강삼각주(长三角), 푸젠(福建), 광둥(广东) 등 지역에 해상풍력발전기지 구축. 서남부 등 지역에 수력발전 기지를 구축 △에너지 저장·운송 인프라 구축 농촌 재생 가능 에너지의 종합적 이용을 확대 △재생에너지 공급망·산업망 구축 △관련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임

자료원 : 국무원

https://cj.sina.com.cn/articles/view/3164957712/bca56c1002001xqx0
www.ndrc.gov.cn/xxgk/zcfb/ghwb/202206/t20220601_1326719.html?code=&state=123

3 中 재정부, 〈자동차 취득세 인하조치로 소비활성화 추진〉 계획

■ 중국 재정부 및 세무총국은 5월 31일 〈자동차 구매세 감면에 관한 통지문〉 (关于减征部分乘用车车辆购置税的公告)을 발표하여, 5월 3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판매가격이 30만 위안(약 5,600만 원)이내의 엔진 배기량이 2.0리터 이하인 승용차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음

- 앞서 지난 5월 23일 리커창(李克强)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〈6가지 정책 및 33개 조치로 경제 안정화 추진 계획〉(进一步部署稳经济一揽子措施)을 발표하여, 자동차 소비를 추진함으로써 단계별로 자동차 구매세를 약 600억 위안(약 11조 원)규모로 감면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

- 코로나19 확산, 반도체 부족, 자동차 소비 부진 등 현상으로 4월 자동차 공급과 수요가 크게 감소됨.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, 1~4월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559만 6,000대 및 576만 1,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.4%, 31.1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

자료원 : 재정부

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34334748056781893&wfr=spider&for=pc
https://www.yoojia.com/article/9592003041174766067.html

4 베이징, 〈코로나 19 방역 및 경제 안정화 조치 실시 방안 〉 발표

■ 베이징시정부는 6월 2일 〈베이징시 코로나 19 방역 및 경제 안정화 조치 실시 방안〉(《北京市统筹疫情防控和稳定经济增长的实施方案》)을 통해 6가지 정책 45개 조치로 '제로코로나'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

- 6가지 정책 45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△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 : 정부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 상대로 구매비중을 확대. 기업이 부담하는 양로·실업·산재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시키며, 연체료를 면제 △공급망·산업망 안정성을 유지 : 징진지(京津冀, 베이징·톈진·허베이)간 상호 연결된 통행증 발급을 추진. 향후 방역물자 생산업체, 중점기업에 대한 '화이트리스트제도'를 도입하여, 코로나19 방역기간에도 정상적인 조업재개를 보장 △첨단 산업의 발전을 추진 : 베이징시는 스마트 기술 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며, 특히 중소기업이 진행하는 디지털 에너지 사업에 한해 계약금 20%에 달하는 장려금을 지급 △중대한 프로젝트를 추진 : 도시부중심(城市副中心) 구축을 가속화하고, 집적회로, 신에너지자동차, 헬스케어 등 분야의 프로젝트를 가속화 △소비활성화 추진 : 자동차 구매세 인하조치를 통해 자동차 소비를 추진 △식량 및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 등임

자료원 : 베이징시정부

http://www.beijing.gov.cn/zhengce/gfxwj/sj/202206/t20220602_2728692.html

5 中 시장감독관리총국, 〈15종 품목에 대한 샘플링 검사 실시 세칙〉 발표

■ 6월 1일, 시장감독관리총국은 〈15종 품목에 대한 샘플링 검사 실시 세칙〉(《市场监管总局关于发布玩具等15种产品质量国家监督抽查实施细则的公告》) 을 발표함

- 동 공고문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품품질에 대한 검사 업무를 제고하기 위하여 〈제품 품질에 대한 샘플링 검사 관리 잠정 방법〉(《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暂行办法》)에 따라, 최근 몇 년간 감독관리 기준 및 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수정을 진행한 것으로, 15종 제품마다 국가기준 등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는 세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음

- 이에 해당하는 15종 품목은 각각 완구, 영유아 의류, 학생용 책가방, 시멘트 제품, 복합비료, 인산비료, 질소비료, 칼륨비료, 위험 화학품 포장재, 전선케이블제품, 전기 자전거 충전기,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이 포함됨

자료원 : 시장감독관리총국

https://gkml.samr.gov.cn/nsjg/zljdj/202206/t20220602_347496.html

6 中 , 2022년 新 1선도시 순위 발표

■ 6월 1일, 제일재경은 〈2022년 도시 비즈니스 매력 순위〉(《2022城市商业魅力排行榜》)를 발표하여 2022년 중국의 新 1선도시 15개 지역을 신규로 선정하였음

- 新 1선도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매체인 제일재경(第一财经)이 각 도시별로 비즈니스 자원, 도시인의 활약도, 라이프스타일, 미래 발전성 등 5대 지표를 종합해 선정한 것으로 2022년 新 1선도시는 순서대로 청두(成都), 충칭(重庆), 항저우(杭州), 시안(西安), 우한(武汉), 쑤저우(苏州), 정저우(郑州), 난징(南京), 톈진(天津), 창사(长沙), 둥관(东莞), 닝보(宁波), 포산(佛山), 허페이(合肥), 칭다오(青岛) 등임

- 2021년과 비교했을 때 △허페이는 2선도시에서 新1선도시로 상승했고, △선양은 新1선도시 명단에서 탈락되었으며, △충칭은 항저우를 추월하여 2위로 선정됨

- 이밖에 기존 1선도시 4개(상하이, 베이징, 광저우, 선전), 2선도시 30개, 3선도시 70개, 4선도시 90개 등의 명단도 발표함

자료원 : 동방망

http://ex.chinadaily.com.cn/exchange/partners/82/rss/channel/cn/columns/80x78w/stories/WS629dced9a3101c3ee7ad920b.html

7 美, 중국산 아티스트 캔버스에 규제지속 판정

■ 5월 23일,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아티스트 캔버스 (Artist Canvas)에 제3차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에서 규제지속 판정을 내림

- 동건의 HS 코드는 5901.90.20.00, 5901.90.40.00, 5903.90.2500등이며, 중국기업의 반덤핑 관세부과율은 55.78~264.09%임

- 2005년 4월 28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아티스트 캔버스에 최초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

자료원 : 무역구제정보망

http://www.cacs.mofcom.gov.cn/cacscms/article/ckys?articleId=173338&type=1